



김용환/신젠타코리아 사장

# ‘애그플레이션’ 끝나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맬더스가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주장한 ‘인구 증가가 식량 증가율을 초과해 세계적인 기아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경고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7년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언론은 지난 30년간 처음으로 농업과 식량문제를 일면 머리기사로 다뤘고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Agriculture + Inflation,농산물 가격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제곡물 가격은 다시 하락했지만 아직도 2년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신용위기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식량위기가 다시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쌀 자급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지난해 있었던 세계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치명적인 문제로 부각됐을 것이다. 특히 쌀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8% 정도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왜 식량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예측되는지는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자명해진다.

전 세계 인구는 1959년 30억명에서 현재 67억명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는 20억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식품 소비에 있어 육류 소비 증가를 수반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사료곡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식량 증산을 위해 더 많은 경지를 확보하

는 것이 가능할까? FAO는 전 세계 경지면적인 15억 헥타르에서 약 20%까지는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50% 식량 증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새로운 경지 확보는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수확량의 증가는 인류를 기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확량의 증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무엇이 여기에 공헌해 왔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첨단 농업기술보다는 재래 방법을 선호한다. 유기농업 등이 그 한 예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DDT와 같이 환경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기에 개발된 과거의 일부 작물보호제가 환경에 끼친 악영향 때문이다. 모든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지금의 제품들에도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유기농업은 소비자의 기호에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는 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식량자급률이 2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는 식량확보는 석유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 쌀 자급의 최후 방어선과 같은 농업진흥지역의 감소는 점증하는 식량위기 환경아래서 우리 먹을거리의 국외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높은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하는 시기이다.〈매경 이코노미 1507호 기고문〉 Y